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건축가에게, 그는 주된 머릿들이요 반석입니다.  
 천문학자에게, 그는 의의 태양이요, 빛나는 새벽별입니다.  
 낚시꾼에게, 그는 사람들을 낚는 어부입니다.  
 빵굽는 이에게, 그는 살아있는 빵입니다.  
 생물학자에게, 그는 생명입니다.

목수에게, 그는 문입니다.  
 쓸쓸한 이에게, 그는 위로자입니다.  
 표류하는 이에게, 그는 닻입니다.  
 의사에게, 그는 훌륭한 시술가입니다.  
 교육자에게, 그는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농부에게, 그는 씨뿌리는 자이며, 수확의 주인입니다.  
 친구가 없는 이에게, 그는 형제보다 더 가깝게 지켜주는 친구입니다.  
 꽃 가꾸는 이에게, 그는 사론의 장미꽃이며, 계곡의 백합화입니다.  
 범죄한 이에게, 그는 화해자입니다.  
 원예가에게, 그는 참 포도나무입니다.  
 무거운 짐진 자에게, 그는 "내가 너에게 짐을 주노라" 라고 말합니다.  
 소망으로 가득찬 자에게, 그는 새날에 대한 예언자입니다.  
 판사에게, 그는 의로운 심판자이며, 모든이의 재판관입니다.  
 배심원에게, 그는 신실하고 진실된 증인입니다.  
 보석상에게, 그는 실로 값진 진주입니다.  
 변호사에게, 그는 상담자이며, 법을 제정하는 자이며, 변호하는 자입니다.  
 외로운 이에게, 그는 항상 함께하는 동반자입니다.  
 외로운 처녀에게, 그는 그녀의 약혼자입니다.  
 선원에게, 그는 복극성입니다.  
 어머니에게, 그는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신문기자에게, 그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들입니다.  
 갈급한 이에게, 그는 공급원입니다.  
 안과의사에게, 그는 눈들의 빛입니다.  
 버림받은 이에게, 그는 죄인들의 친구입니다.  
 박애주의자에게, 그는 형용할 수 없는 선물입니다.  
 선포자에게, 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웅기장이에게, 그는 영예의 그릇입니다.  
 순례자에게, 그는 길입니다.  
 더럽혀진 이에게, 그는 양심을 깨끗케 하는 자입니다.  
 조각가에게, 그는 살아있는 돌입니다.  
 죄인에게, 그는 세상의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양입니다.  
 노동자에게, 그는 짐을 주는 자입니다.  
 목마른 이에게, 그는 생명의 물입니다.  
 현명한 이에게, 그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눈물나는 밤엔 우머의 풋뽕을▶ 한국담배인삼공사 사훈(?)  
**"담배로 망친 건강 인삼으로 추스리자"**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2002년 교회생활'가족으로 오신 예수님" <b>갈보리 교회</b>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의명성 -명예
제 4권 40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2년 10월 6일
☎520-9464. 71 Khyber Pass Rd.(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		calvary.ca.to

**골퍼 최경주의 간증**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아내(김현정)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신혼 초 나는 "기도할 때만이라도 앉아 있어 달라"는 아내의 말을 무시하고 소파에 그대로 누워 있을 정도로 신앙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거칠게 살아왔던 내게 당시 종교는 별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내가 신앙에 관심을 보인 것은 헌신적으로 내조한 아내 덕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소개로 지금의 아내를 만났으나 교제를 시작한 후 처가의 반대에 부딪쳐야 했습니다. 골프가 잘 알려지지 않았던 당시 골프선수는 그리 환영받을 사뭇감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결혼을 반대하던 처가에서는 프로테스트를 통과하면 결혼을 승낙한다는 조건을 내걸 정도였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아내는 내 결을떠나지 않았고 나를 위해 언제나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결국 95년 12월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아내를 통해 내게 가정과 신앙이라는 귀중한 선물을 주신 느낌입니다. 프로골퍼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대단한 직업입니다. 골프 자체가 멘탈게임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안정은 필수입니다. 특히 모든 것이 생소한 미국PGA투어에 적응해야 했던 미국진출초기에 나를 붙잡아 주는 힘은 가족과 신앙밖에 없었습니다.

루키 시절인 3년 전 투어를 뛰느라 주일 예배를 못 드릴 때 나는 토요일저녁에 교회를 찾아 기도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 전역에 계신 한인교회의 목사님들이 나를 위해 기도한다는 생각으로 위안을 삼았습니다. 경기 중에도 나의 기도는 계속됐습니다.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에 있는 능력만이라도 제대로 발휘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 결과는 이번 컴팩클래식에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커다란 은총을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엄마가 딸에게**  
 감박이를  
 안 키고 들어온 차를 향해  
 욱하지 마라  
 우린 감박감박 잇는데  
 전문가들이잖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잘못 걸려온 전화라도  
 친절히 받아라  
 거듭 두 번, 세번을 와도  
 괜찮다고 웃으며 받아라  
 네 번째오면 그땐 마음대로 해라

#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 광 송 Gloria	"Calvary"	다 같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도니라	인 도 자
*찬 송 Hymn	34장	다 같이
*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	30(시 139)	인 도 자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사 도 신 경	다 같이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어 린 이 시 간 Sunday School		
찬 송 Hymn	364장	다 같이
기 도 Prayer		노은숙 권사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누가복음 16:1-13	인 도 자
성 가 대 찬 양 Choir		나무심자가성가대
설 교 Sermon	'지혜로운 신앙'	김성국 목사
찬 송 Hymn	' 351장' (마지막절은 일어서서)	다 같이
헌 금 기 도 Offering Pray		인 도 자
응 답 송 Response Song	'이 믿음 더욱 굳세라' (1절:교역자 가족, 2절:다같이)	다 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10월의 예배위원◆

일자	주일기도	헌금위원	안 내 위 원	가족찬송	Tea Time
6	노은숙	신영화	김교섭 . 정희자	민광호 . 김심홍	김경구 . 김교섭
13	이규임	사카시다	박병민 . 이기중	박기원 . 박기해	김만석 . 김영길
20	정희자	이기중	박상욱 . 이금선	박기창 . 한정욱	김성국 . 김중건
27	지찬영	이지영	박정자 . 김순자	박병민 . 이기중	김종우 . 김종원

'2002년 교회표어 "가족으로 오신 예수님"(엡 5:21) <실천사항>표현하는 사랑만이 아름답습니다 *기도하는 부모 *닭살돋는 애정표현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교회를 다녀 보신후 결정 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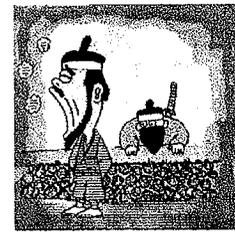
주일예배: 낮 12시 | 수요일예배: 저녁 7:30 | 아동.학생부:주일 낮 12시 | 청년부:토 저녁 6시

◆집집마다 꽃들이 활짝 만개된 봄입니다. 하얗고 작은 꽃에 탄성을 지으면서도 그제자두나무인지 살구나무인지 복숭아 나무인지 구분을 못해 모두 벚꽃이라고 생각하며 눈길을 주었습니다. 어느 교회에 다니는지는 몰라도 아름다운 생활을 보면 모두 예수 향기로 불리우는 것이 아름다운 믿음이라 생각했습니다.



- 1.교우소식
  - \*김종원 집사. 2달간 예정으로 한국과 다른 나라를 방문키위해 지난 주일 밤에 출국.
  - \*김영길 집사: 전국체전 뉴질랜드 대표선발전 테니스대회에서 단식 우승
- 2.금주는 구역예배주간입니다.
  - \*한달에 한번 갖는 구역예배에서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의 능력과 교제의 기쁨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 3.Tae Time 중에 아동부.학생부.청년부.성가대 담당자(부장,부감) 모임을 갖습니다
- 4.수요성경강해: 말씀을 사모함은 예수님과 깊은 교제의 증거입니다.
  - \*수요일 7:30 pm
- 5.김성국 목사. 부친방문위해 한국방문 합니다
- 6.선교지원
  - \*한국소년소녀가장 2명: 지난번 '성문밖 주일'에 교회로 봉헌하신 헌금을 고국의 소년 소녀 가장에게 보냅니다
  - \*남태평양 선교:바나와투 원주민 목회자 한달 생활비 \$200을 매월 보내드립니다.
7. 제2남선교회 골프모임(예고):<대상> 1,2남선교회원
  - \*일시: 10월 19일(토) 오전 10:30 \*장소: Takapuna Golf Club
  - \*신청:권용일.윤형권.이재영 집사
- 8.10월의 예배와 모임

일자	주 일	주 중 모 임
6		구역예배(11)
13		믿음의 어머니기도회(15).결식자 급식봉사(19) 친교골프모임(19)
20		
27	이삭줍기주일	3교회 체육대회(27) 당회(29)



【군대에서 많이 들던 말】  
"죽면 죽는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벧전5:8)